

제8과 죄와 싸우라

성령의 사람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여덟 번째 시간, 오늘은 ‘죄와 싸우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죄는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죄된 속성은 죄의 유혹에 끌립니다. 더구나 사단은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하고, 죄로 유혹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사람들은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것도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말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싸워야 합니다.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기대합니다.’

1. ()에 중독된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벼움’에 중독된 듯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 하면, 왜 분위기를 망치냐며, 주제를 돌려 버리기 일쑤입니다. 어느 누구도 ‘삶에 대해’, ‘인생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이유야 많겠지만, 그냥 가볍게 넘겨 버리려는 경향들이 지배적입니다. TV를 봐도, 직장 안에서도, 수많은 모임과 만남이 있지만, 진지함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십거리나,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들로 흥수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런 ‘가벼움의 경향’ 속에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들도, 쉽게 넘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선악의 구별이 모호한 포스트모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써는 어차피 정확히 구별할 수도 없는 ‘죄’나 ‘악’의 문제를 다루는 것부터 부담스러워하고, 적당히 눈감고 넘어가려 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더 나아가 ‘죄를 옳다고 여기는 지경’에 까지 이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함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28-32)

→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에서 죄는 시작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악한 자들의 행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아는 인류가 오히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2. 죄의 ()

세상이 간과하는 것처럼 죄는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죄는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1) 죄란 무엇인가?

죄에 대한 정의는 방대하고 다양합니다.

✱ 신학적 죄의 정의

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의 죄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작위의 죄를 모두 포함한다. 죄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동기를 포함한다.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거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불신앙을 포함한다. 죄는 언제나 우상 숭배이며 이는 탁월하신 하나님을 다른 무엇이나 다른 누구 - 대체로 자기 자신 - 로 대체하는 행위이다.

✱ 성경적 죄의 정의

① 죄는 ()

인류에 죄가 들어온 현장은 창세기 3장에서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서 죄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15-17)

→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약속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절대로 불공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서 죄가 들어오게 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친 억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에덴동산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경계의 의미로 약속으로 정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것마저 먹어야 하나요? 그래야 공정한가요?

또 다른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 할 때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못 먹게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로봇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순종을 선택할 수도,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이며 죄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기가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6-10)

→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던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여 죄 짓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2) 죄의 ()

그렇다면 죄의 심각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① ()

죄가 심각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1-2)

→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평안도, 기쁨도, 소망도, 은혜와 복도, 풍요로움도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불행은 바로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에 기인합니다.

② ()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깨어졌습니다.

①A ()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11-12)

ⓑ ()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17-19)

ⓒ ()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16)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19)

③ ()

마지막으로 죄의 심각성은 바로 ‘사망’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12)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23)

죄는 인류의 모든 두려움의 원인인 ‘죽음’ 그것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처럼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죄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죄를 옳다고 말하는 지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절대로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 악은 ()

이런 세상 속에서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바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죄를 몰아내야 합니다.

1) ()

죄의 심각성을 인식한 성령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악과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 까지 싸워야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2:4)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22)

죄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 악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죄를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2) (_____)

아무리 경계하고 싸워도 나약한 인간은 온전히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7)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18-19)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함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7-9)

□ 묵상과 적용

오늘 배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적용할 것들을 적어 보세요!!

[illegible]